

일어나 함께 가자 < 미얀마 이주민 선교 스토리 >

"여호와와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사사기 6:12)

샬롬! 사랑하는 선교 동역자 여러분

태국 치앙라이에서 주님의 평강을 전합니다.

고난주간을 지나며 예수부활 예수생명의 기쁨을 맞이하는 이 계절, 동시에 세상은 전쟁의 소식들과 그로 인해 고통받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때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염려와 불안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미디안의 눈을 피해 숨어 있던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위로와 소망되길 축복합니다.

무익한 종인 저희를 통해 미얀마 교회 가운데 행하신 3월의 은혜로운 소식들을 나눕니다.

지혜의 열매: 메사이 교회 한국어 교실 수료식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한국어 교실이 3월 14일, 드디어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기초 1반 11명과 기초 2반 2명, 총 13명의 학생이 한국어 공부를 마쳤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어 자음과 모음도 모르던 아이들이 이제는 한국어를 띄엄띄엄 읽고, 한국어 발음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날 수료식에서는 몇 주전에 만든 한국어 자기소개 영상을 다같이 보고, 아이들의 성실함을 격려하고 수료를 축하하였습니다. 5개월동안 매주 토요일 수업을 통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알아가고, 이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 참 감사합니다.

6월에 한국어 다음 과정을 열어 한국어 공부에 관심 있는 학생들의 학업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감사와 기쁨: 교회 설립 기념 예배

3월에는 그레이스 교회에 기쁨이 겹쳤습니다.

22일에는 메사이 은혜교회 설립 22주년, 29일에는 치앙라이 은혜 교회 설립 23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낯선 태국 땅에서 미얀마 이주민들의 안식처가 되어준 이 교회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마웅 목사님 부부(메사이 교회)와 싸이묘민 목사님 부부(치앙라이 교회)가 예수님 닮은 선한 목자가 되어 이방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미얀마 영혼들을 잘 인도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배움과 성장: 어린이 집회와 일일 교사교육

김재욱, 노미화 선교사님과 한미영 인형극 대표님을 초청하여 메사이, 치앙라이, 치앙센 지역을 순회하며 어린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강아지 똥 인형극과 성경 말씀, 만들기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눈망울에는 생기가 가득했습니다.

또한 20일에는 주일학교 교사 18명이 교사교육에 참여하여, 주일학교에서 할 수 있는 말씀 관련 만들기와 교구, 게임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위로와 회복: 제2차 미얀마 사모 리트릿(Rejoice 2026)

3월 23일부터 25일까지, 미얀마 사모님 일곱 분(태국 거주 4명, 미얀마 타출렉 거주 3명)을 모시고 작년에 이어 올해 2박 3일 사모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매일 예배를 통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각 사모님들과 가정, 교회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노미화 선교사님이 준비해 오신 아로마 오일 만들기 시간에는 향기를 통해 지친 몸과 마음을 깨우고 상한 감정을 다독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십자가 키링 만들기를 통해 십자가가 더 이상 수치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임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사모님들은 치앙라이에 있는 아카팜 빌의 푸른 초장에서 오랜만의 쉼을 누리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하나님이 주신 자연 속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국 GSM 선교사님의 귀한 후원으로 마련된 2박 3일 리트릿은 미얀마 사모님들에게 단순한 쉼을 넘어, 다시 영혼 사랑 사역으로 나아가갈 기쁨과 회복의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연합의 기쁨: 간식 카페와 태권도 선교

28일에는 치앙라이 그레이스 교회에서 특별한 '간식 카페'가 열렸습니다.

반프라쿤 교회 태국 학생들이 정성껏 준비한 컵케익을 나누며 미얀마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태국과 미얀마, 서로 다른 민족의 청소년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예배하니, 천국 잔치 같았습니다.

또한 3월부터 정광채 선교사님의 수업으로 매주 주일 오후 2시간씩 진행되는 말씀 훈련과 태권도 수업을 통해 치앙라이 그레이스 교회 27명의 아이들이 영적 군사로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미얀마 사모리트릿

간식카페- 치앙라이 은혜 교회

저희 부부는 선교사 비자 발급을 위해 4월 10일 한국을 방문합니다.

한국에 머무는 한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사 비자 발급이 이루어지고 필요한 병원 진료와 치료도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부탁 드립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자신을 작고 보잘 것 없게 여겼던 기드온을 하나님은 '큰 용사'라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큰 용사라고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기도와 헌신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귀하게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이 주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보배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2026년 4월 3일 이방의 빛 이승현 윤선희 선교사 올림

*** 저희를 위한 기도와 후원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 1.한국어 교실을 수료한 메사이 교회 청소년들과 치앙라이 교회 태권도 훈련을 받는 청소년들이 각자의 공동체에서 믿음의 리더로 성장하게 하소서.
- 2.치앙라이, 메사이, 치앙센, 판, 팡, 메잔 교회가 그 지역에 복음의 등대가 되게 하시고, 섬기는 목사님 가정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소서.
- 3.저희 부부의 선교사 비자 발급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건강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 4.한국의 부모님과 자녀들(예진, 하진)을 인도해 주시고, 늘 기도로 동역해 주시는 모든 동역자님의 삶에 부활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소서



lovekolkata



+66-09369-49590 (태국) 010- 4065- 7579 (한국)



under1231@daum.net

후원계좌

하나은행 920-193076-131 (GMS 이승현/ 윤선희)
우리은행 165-08- 271938 (이승현)



이 모든 것이 시작되고 지금도 각자의 자리에서 기쁨과 회복의 역사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모님들의 감사의 마음을 정리해 올립니다

#1 너퍼시 사모님

저희는 서로 잘 모르는 사이였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된 사모들입니다.
이 리트릿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힘을 얻었고, 사모님들과 함께한 기쁨은 제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에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2 부퍼 사모님

"솔직히 이곳에 오기 전에는 걱정이 정말 많았습니다.
버마어가 서툴러서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하느라 전날 밤에는 잠 한숨도 자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기도 끝에 '일단 가보라'는 남편의 격려에 힘입어 용기를 냈습니다.
이곳에 도착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제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제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확신을 얻었습니다.
저를 따뜻하게 보살펴 주신 모든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3 니엔 니엔 툰 사모님

"이번 리트릿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깊이 느낍니다. 무엇보다 먼저 주님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의 모든 순간을 정성껏 사진에 담아주신 메리 선교사님의 인내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희 남편도 사진 찍을 때는 이만큼 기다려주지 못하거든요!
그리웠던 선배 사모님들과 재회하고, 그분들의 삶에서 귀한 지혜를 배울 수 있어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 예갭 사모님

"함께한 시간이 짧았지만, 이 며칠 동안 저는 정말로 필요했던 깊은 휴식을 얻었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치앙라이의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성경 공부와 새로운 만들기를 배우는 시간까지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후원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에스더, 메리 선교사님, 그리고 미국에서 마음을 보태주신 후원자님께 감사를 전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5 에이에이 사모님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 133편 말씀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저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매 된 자들로서, 이번 리트릿을 통해 진정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일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 리트릿이 가능하도록 힘써주신 존 리, 메리, 폴, 에스더 선교사님 그리고 미국의 선교사님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6 피비 사모님

"먼저, 이번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낍니다. 저희에게 깊은 사랑을 보여주시고, 귀한 시간을 내어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신 모든 한국 선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들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발 마사지와 페이스 마사지처럼 생전 처음 해보는 경험들에 정말 설레고 행복했습니다!
가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곳들을 방문한 것도 큰 기쁨이었고요.
저희 사역지로 돌아가서 이 감동을 다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여러분과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7 너웨와쉬 사모님

"먼저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저희를 위해 시간을 내어 이 귀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신 메리, 에스더, 존, 폴 선교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 이곳에서 배우고 휴식하며 보낸 시간들이 제게는 정말 큰 행복이었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